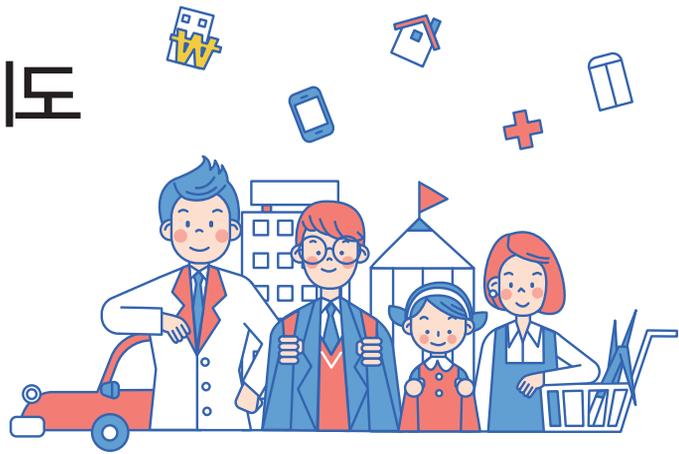


2020년 달라지는 법과 제도

2020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금융·재정·조세·교육·보육·가족·보건·복지·고용 등 총 272개이다.



● 금융·재정·조세

● 소비자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약관 개선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보험금 지급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약관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고, 일반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만들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높거나 보장내용이 다른 보험상품명을 정비하고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제공하는 '맞춤형 약관'이 교부될 예정이다.

●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2019년 12월 30일부터 소비자의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2020년 말부터는 불필요하게 등록된 자동납부를 해지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타 카드로 옮길 수 있는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현재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 주택연금 가입연령 인하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 교육·보육·가족

● 아이돌봄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운영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대기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웹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청내용을 확인하거나 취소·변경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대기 관리시스템이 운영되어 서비스 신청 시 대기 순번, 예상되는 대기 기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1월부터 단계적 시범운동을 걸쳐 3월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질서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실시된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동 기준)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을 요청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 제도 도입

2020년 3월 14일부터는 취향에 따라 향료나 색소를 추가하거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눠 담은 '나만의 화장품'을 판매장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및 소분 업무는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한 조제관리사만 담당하도록 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

앞으로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 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하여 재난약자의 피난 기본권을 보장한다.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 물에 광고를 최소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추가하여 상영한다. 피난 안내 영상물에 자막 내용 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화 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문화·체육·관광

국립공원 탐방인프라· 프로그램 확충

국립공원을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탐방인프라를 확충하고, 스탬프 투어 등을 도입한다. 국립공원 내 무장애 탐방로와 무장애 야영지를 확충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탐방약자의 공원시설 이용을 확대하고,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품격 있는 국립공원 패스포트에 방문 기념 스탬프를 찍어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 코스가 신설된다.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관

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식·정보·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이 2020년 1월 중순 개관한다. 국립고궁박물관 1층에 위치하며 인터랙티브 미디어월, VR·AR 체험존, 몰입형 영상 체험존, 문화유산 여행길, 카페(휴식공간) 등의 시설이 마련된다.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통해 문화유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체험 및 디지털 문화유산 강좌 등이 열릴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

축산물이력제도 확대 시행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된다.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일 신고해야 하며, 농장 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김치 안전관리 강화

수입김치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정책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관리 강화사업이 추진된다. 국민이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 실태조사 및 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위생취약 부분을 개선한다. 또한 해외 김치 제조업소에 대해 HACCP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제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주기 수입김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기상

저탄소제품 녹색제품으로 인정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만 해당되었던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제품이 추가된다. 저탄소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제품 제조·유통 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2020년 1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 7 기술지원이 종료되었다.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새로 발견되는 보안취약점에 대해서는 보안조치가 불가능하여 이를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 보안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4일 이전까지 다른 운영체제를 교체하거나 상위 버전(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좋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기술지원 종료 후 악성코드 탐지 등을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39세 이하의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했던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이 40세 이상의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위 사업은 예비창업자의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고용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한다. 이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부터 적용된다.



여성생식기(자궁, 난소)·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운영시간도 연장된다. 앞으로 인지지원등급자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된다. 2019년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5개의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양성교육비와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가 신규로 지원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며,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파견을 확대한다.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통합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되어 운영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앞으로는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기존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한도 또한 유효기간 연장에 맞춰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아진다.